

‘친환경 먹거리 육성’…道, 105억 투입 농촌융복합산업화 박차

유기농 생태마을 등 4개 사업 추진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 시도
현재 71개소 마을 유기농 지정

전남도가 친환경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프라인 구축 등 4개 사업에 105억원(보조금 88억원·자부담 2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살

리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 조성을 돕는다. 올해 순천농협,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에 5억원씩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살아 숨쉬는 농촌 생태계를 유기농업 체증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여수 화산마을, 곡성 전기마을, 화순 선하동마을, 영암 주암마을·남송정마을·천혜마을·유전마을, 함평 옥동마을, 영광 사산마을, 장성 상도마을 등 71개소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에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 장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장흥 지북



전남도가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유기 생태마을인 나주 계량마을에서 진행된 목포산정초김정체모습. <전남도 제공>

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중 나주 계량마을은 지난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지원받아 김치 가공공장 운영 등으로 마을 수입을 창출하고 생태 농업 수확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또한 계량마을은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노안성당이 마을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95% 이상이 천주교 신자로 가톨릭농민회와 협력해 오래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이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6만8천ha의 50%인 3만4천ha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미래 농업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모링가나무 뿌리 화장품 원료 활용

전남산림연구원, 국내·국제 화장품 원료집 등록
제품화 연계 K-뷰티 경쟁력 제고



전남도산림연구원 연구원이 모링가나무의 버려지던 뿌리를 국내·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화장품 원료로 공식 등록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모링가나무의 뿌리 부위를 활용한 소재가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CID)과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원료로 등록된 첫 사례다. 버려지던 뿌리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열대 도입 수종인 모링가나무는 난·아열대 기후에서 5-12m로 자라는 다년생 수종이다. 그동안 국내에 종자로 도입돼 재배 후 잎·줄기는 차 등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국내에선 주로 순천·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작목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 기후 특성상 월동이 불가능해 가을철 수확 후 비식용인 지하부(뿌리)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경운작업을 통해 폐기됐다. 앞서 지난 2월 전남도산림연구원 주최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회의에서 한숙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남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발굴하고 단순 추출을 넘어 제품화·산업화로 연계해 K-뷰티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산림자원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모링가 뿌리 자원에 주목해 고유 생리활성 성분 분석,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

진해 지난 5일 등록 완료했다. 모링가 뿌리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계 화합물과 다양한 폴리페놀류가 풍부하게 함유돼 항염, 항산화, 보습 등 피부 기능성 효능이 우수하다. 특히 국제 연구논문 등 문헌에 따르면 뿌리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가 잎·씨앗보다 뛰어나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모링가 뿌리는 인도의 전통 의약품인 आयुर्वेद에서 약용이나 향신료로 오랜 기간 활용됐다”며 “뿌리에서 특유의 진한 인삼향이 있는 등 화장품 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그동안 모링가 외에도 황칠나무와 생달나무 등 난대산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자체 개발한 ‘황칠 향수’, ‘생달나무 디퓨저’가 전남도 PB 상품으로 납도장터를 통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식품·향장 산업화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농협광주본부, 지역 근로장애인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행사

쌀 가공식품 나눔 진행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일 “최근 광주광역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호 광주지역본부장과 조광영 대표(잡&종은직업재활센터), 김관호 센터장(좋은광산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나선용 원장(광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근로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한 30만 원 상당의 쌀 가공식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현호 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농업의 소중



함을 널리 알리고 쌀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광주원에농협, 지역농협 임원 발전 간담회

하나로마트·중도매인 연결 등 논의

광주원에농협은 2일 “최근 전남 5개 지역농협 임원 조합원과 함께 광주원에농협과 지역농협간 상생하고 동행하기 위한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농협중앙회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원에농협의 주요 경제사업인 공판장, 육묘장 그리고 필름공장 등에 대한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광주원에농협과 지역농협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지역농

협 하나로마트와 중도매인 간 사업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사업 추진, 청년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기술 상호교류,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등 내실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정일기 광주원에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광주원에농협간 소통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